

불교지도자 신년메시지

산색은 늘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다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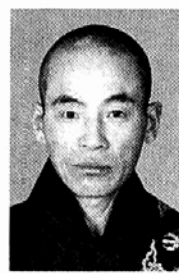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함께 본고향에 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꽃 빛은 찬란해도 지고야 말 것 이 세상 누라서 죽지 않으리 덧없는 험한 산을 오늘 넘어서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땅에는 온갖 만물 만상이 있어 만물 만상에 사람 또한 있구나. 만물 만상 가운데는 사람이 제일이라. 사람이 제일임은 부처가 될 수 있음이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새 해 첫째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위정자(僞政者)의 무아(無我) 사상에 입각한 대아(大我) 정신이 소용되는 것입니다. 새천년 첫 번째 해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인간 존엄성으로

진각종 총인 각해 대종사



해와 달이 서로 비치는 곳에/삼라만상이 조화롭게 장엄을 이룬다/따로 부처님의 금색광명을 찾으려고 하지말라/ 이 몸이 곧 법계의 주인공인 비로보신의 빛이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천년에 긴박한 희망이 채 현실화되기 전에 심성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



대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으로 나라의 융성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불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한해를 여는 오늘 무엇보다도 대승보살의 서원을 굳게 세워 실천

비고 비어 한 물건 없애라

협한 꿈 꾸지 않고 취한 사람 노릇 않으리.

꿈속에 밝고 밝게 나고 죽을 있더니 깨친 후에 비고 비어 한 물건 없애라 너와 내가 없고 부처와 범부도 없나니 적멸한 성품 가운데 물고 찾지 말라.

모든 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는 곧 여래의 성불함이로다. 좁은 소견으로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알지 못하기에 그대를 위해 결단해 주네.

산색(山色)은 천추록(千秋綠)이요 광명(光明)은 만고명(萬古明)을! 산색은 항상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다. 아악.

너와 내가 하나됨이 통일

사람이 부처됨은 모든 차원과 경계 여음이야. 나 없어야 온 천지와 하나됨이라.

새 해가 밝아 희망의 새 해가 다시 드니 일체 만물이 새 생명 얻어 기뻐함이고, 너와 내가 모두 함께 손잡고 기뻐함이라. 너와 나의 벽을 헐고 하나됨이라. 너와 내가 본래 하나이었음이라.

신사년이 밝으니 지혜 또한 밝아라. 교묘한 지혜 버리고 참된 지혜 얻어 기뻐함이라.

새해가 밝아 조국통일의 앞날이 밝아라. 너와 내가 하나됨이 통일이라. 너와 내가 하나되어 남북이 하나됨이라. 남북이 통일됨이라.

새마음으로 새사람 되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가 부처님의 정법(正法)으로 사는 정의(正義)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법에 입각해서 영위되어야 하고 국민(國民)이 모두 정법과 질서를 지켜 생활할 때 도의(道義)와 정의와 광명의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더욱 화합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끼고 존중하며 돕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하며 양보하는 가운데서 화합한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덕육이 각계각층의 대립과 갈등·불신(不信任)이 우심해 가는 오늘날 관용과 이해와 이타(利他)로 화합하는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폐쇄된 복념(復讐)의 고난에 시달리는 동포들에게 화합과 이타(利他)의 손을 편치어 민족의 통일 의지를 드높이며 국가가 통일되고 민족이 자결합할 새역사를 창조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려온 결과 많은 이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을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만능 시대에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을 자신으로부터 찾고, 모든 변화의 출발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세가 바로 세상을 지주로 사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신 의미에 통하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주인의식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국가 사회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변화의 문화를 만들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주는 화합의 삶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민족·인류에 희망 빛 주자

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부단한 자기 혁신과 반성으로 민족과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종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화와 양보로 화합하는 불교, 이웃에게 따스한 자비를 베풀어주는 불교, 민족통일의 시대를 선도하며 새 정보문명 시대를 앞서가는 불교가 되기를, 그리고 공동체의 건설에 모든 사부대중이 한 마음이 되어 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화합·경제안정 발원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불일(佛日)이 중회(中會)하고 법륜(法輪)이 상전(常轉)함이라! 희망찬 2001년, 이제 우리는 방황과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참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제 소아적인 자기편견을 넘어서 대승적인 보살정신에 입각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修行) 동사(同事)의 사법법을

실천하여 이나라 이국도를 정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2001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국토에 평화적 정착, 그리고 한민족의 화합과 시급한 경제안정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같이 힘을 합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이 땅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이 난국을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신 찾자

총지종 종령 록정 대종사



해마다 돌아오는 새해 아침이건만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리니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은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으니 언제 진정으로 맑은 새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

교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사회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수행으로 자신을 다독고 중생을 이끌어야 하고 불자들은 항상 정도를 받들고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어 남의 삶을 살 것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

보문종 종정 해안 스님



새해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거센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자들은 역경을 오히려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 낙담하고도 풍요로운 마음의 발을 일궈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이란 결국 선한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확보하여 주변환경을 주도해 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니까요. 업으로부터 자유를 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

을 쟁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3대의 커다란 덕성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들 마음에서 깨달음으로 실어나르는 발심의 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심의 대승적 구조입니다. 대승적 중생심을 바탕으로 선한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실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 밝아 세상 밝게

원웅종 종정 일공 스님



밝아오는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지금, 우리는 이 참담하고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의 자만과 타성에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 또한 지난 한 해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불교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냉랭하다 못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

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밝아지면 인간이 사는 세상도 밝아진 듯 주위를 돌아보고 작은 정성으로 남모르는 선업을 베풀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원웅의 원리를 구현하고 실천하여 불교인 각자가 화합 원웅을 이루는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자리 알면 부처

관음종 종정대행 흥파 스님



법신(法身)만의 마음자리를 안팎으로 밝게 하는 신심은 무량공덕의 참마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기로 말하면 우주삼라만상을 감싸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 한 티끌도 용납하지 못하는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한없이 자유자재하여 이 마음의 자리를 알고 알면 부처라 하고, 모르

고 살면 중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깨어 살면 극락, 모르고 살면 지옥이요, 업장만 더해 갑니다. 한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극락세계가 됩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스스로 마음으로 짓고 받기 마련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신사 원두에 참마음의 주인공을 찾아 떠납시다.

평상의 마음이 곧 도

열반종 해공 종정



20세기는 냉전의 시대, 공포의 시대,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로서 우리는 탐진치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21세기는 평화의 시대, 화합의 시대, 행복의 시대로 극락정토를 만들기 위해 불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밤이 길면 새벽이 오는 것이요, 낮이 길면 밤이 오는 것이요, 고통과 괴로움이 길면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오면 고통과 괴로움이 먼저 생각해야 하며, 항상 행복하고 기쁠 때 먼저 괴로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중생과 부처님이 돌아오니 님이 행복과 불행도 돌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청정하면 행복하고, 탐진치 삼독에 얽매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불교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 대법회

불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신년하례)

- 일시: 불기 2545(2001)년 1월 19일(금) 오후 3시
장소: 허림라 (세검정)

부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E-mail: kboasm@mahayana.or.kr
대표전화: 02) 732-2613
팩스: 02) 737-7872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정 대

우)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대표전화: (02) 732-4885 팩스: (02) 737-7872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시

주 지 관 장 정 련

- 사회복지법인 내원 물운대복지관
전화: (051) 264-9033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반야원(처자마을)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천리 346
전화: (055) 632-1854
법인사무국: (051) 261-9627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전화: (051) 405-5222~4, 405-6079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2
전화: (051) 242-0691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조 실 승 산 행 원
주 지 성 광

사 부 대 중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02) 902-2663